



“한 집 건너 위반”... 소방조사 ‘과부하’

지난해 조사 6180개소 중 49% 불량사항 적발 제주 요원 1인당 조사 대상 전국에서 두번째

제주에서 소방특별조사를 벌였더니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조사부터 조치, 확인까지 해야하는 제주소방조직이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1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특별조사가 이뤄진 6180개소(건축·시설물 등) 가운데 3036개소(49.1%)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국 평균 적발률(30.1%)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적발 사항을 보면 비상구 폐쇄 혹은 물건 적치, 불법 가설건축물, 소화기 미설치 등으로 다양한데 건수는 1만2022건(적발 1개소당 3.36건)에 달한다.

적발 사례가 많아지면서 조사뿐만 아니라 조치명령과 확인조사까지 벌여야하는 제주소방은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다. 가뜰이나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 매년 늘어나는 조사 대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소방 요원 1인당 조사 대상 수는 2413개소로, 경기북부(3257개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전국 평균이 1437개소임을 볼때 무려 1000개소 가까이 많은 것이다. 소방특별조사 대상(건축·시설물 등) 증가율도 전국 평균은 19.5%인데 반해 제주는 20.2%였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은 올해 말까지 본부에는 ‘광역소방특별조사단’, 소방서에는 ‘소방특별조사반’을 신규 설치·편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인원이 한 명도 없었던 본부에는 3명이 근무하는 조사단을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7명뿐이던 4개 소방서(제주·서귀·서부·동부)에는 13명을 추가로 투입해 업무 부담 경감과 조사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사 담당자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경연대회, 장기근무자 각종 표창 추천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이번 추진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불시·기획조사를 활성화하고, 보직기피·단기근무로 인한 전문성 부족 문제 등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4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자가 영상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제주대 입구 4중추돌 운전자 구속

제주지법 “도주우려 있어”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트럭과 버스를 추돌해 6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1t트럭과 버스 2대를 잇따라 추돌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치상)로 H화물운송업체 소속 4.5t 트럭 운전자 A씨(41·대구시)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발부했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심병직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59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1t 트럭에 이어 버스 2대를 연이어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박모(74·여)씨와

관광객 이모(32)씨, 버스 승차대에 대가하던 김모(29)씨가 숨졌다.

아울러 버스 승객 김모(21·여)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아 가까스로 맥박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t 트럭 운전자와 버스 승객 50여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4.5t 트럭이 ‘베이퍼 록(Vapor Lock) 현상’의 전 단계 ‘페이드(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자주 밟아 생기는 마찰열로 인한 제동력 상실) 현상’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아직도 술 먹고 운전대 잡다니...

경찰 2~3월 두달간 206명 단속... 121명 면허취소

코로나 시국, 음식점과 주점 영입이 제약되고 사회적으로 모임을 자제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따라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두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 206명을 적발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6명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206명 가운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21명이다.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자

는 8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대도로나 고속도로, 관광지 주변 등 단속 취약지역 여러 곳을 선정해 30분~1시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경찰은 단속기간 중 제주도 전역에서 5차례에 걸쳐 불시 일제

단속도 벌였다.

경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할 것이라는 인식을 바로잡고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한 연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강영수 제주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나를 포함해 내 가족은 물론,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단한잔의 술이더라도 마셨으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수억대 마약 판매 중국인 2명 구속

구매자 22명도 입건

중국에서 수억대 마약을 밀반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중국인 일당과 국내 구매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도경찰청은 마약류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중국인 B씨 등 3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구매자 2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향정신성 의약품 일종인 졸피뎀 등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뒤 국내에 체류하면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 구매자 등에게



경찰이 중국인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3억3000만원 상당의 졸피뎀, 졸피뎀 등 6972정을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졸피뎀 6~7정을 약 20만원에

판매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마약류 밀반입 경로와 판매량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약 투여 과실 간호조무사 금고 6월에 징유 2년 선고

수면내시경에 장운동 억제제가 아닌 강심제를 투여한 30대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여)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 8일 오전 9시쯤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제주시 소재 의원에서 B씨에 대한 수면 내시경 시술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내시경 시술에 쓰여지는 장운동 억제제가 아닌 강심제인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을 투여, B씨에게 ‘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자동차 불법정비 현장 적발... 4명 입건 불법 판금·도색·수리 등 무등록 정비 혐의

제주서 불법 자동차정비 사업장을 꾸려 판금, 도색 등 무등록 차량 정비를 하던 4명이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업주 A(45)씨와 한국인 직원 1명, 외국인 근로자 2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해안동에 사업장을 차린 B씨로부터 4월 1일 사업장을 인수해 판금과 도색, 차량 수리 등 무등록 정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과 자동차매매상, 카센터 등을 통해 정비에 필요한 손님을 모으고, 하루 4~5대의 차량을 무허가 정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중가 대비 70%의 공임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잠복수사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이날 현장에 급습했다. 현장에선 도색 및 판금을 위해 비닐을 덮어둔 차량 4대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렌터카 업체 차량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진술에 의하면 기존 무허가 영업을 하던 B씨를 통해 사업장을 인수했으며, 붙잡힌 직원 3명도 B씨로부터 고용 승계받았다. 이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2명은 지난해 12월 체류자격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적발한 영업장을 즉시 폐쇄했으며 A씨를 포함한 4명은 현장에서 입건됐다. 자치경찰은 기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던 B씨와 차량을 맡긴 차주들에 대해 추가조사를 할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탱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톤(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니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상향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중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에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거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굴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중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